



시선집중

[성명서]파렴치한 교육부관계자들, 교육계를 떠나라

테마기획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대체자료에 대해 아시나요?

인터뷰

작은 손으로 만드는 선율
10세 피아니스트 김건호 학생

포커스

보이지 않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7월의 눈: 놀라운 작가들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시선집중	04
테마기획	06
인터뷰	08
포커스	10
함께 사는 이야기	12
월드 리포트	13
뉴스앨범	14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 광복절
- [성명서] 파렴치한 교육부관계자들, 교육계를 떠나라!
-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대체자료에 대해 아시나요?
- 작은 손으로 만드는 선율 10세 피아니스트 김건호 학생
- 보이지 않아도 그릴 수 있습니다. 7월의 눈: 놀라운 작가들
- 퇴근길의 무료함 달래기
이성희(시각 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 빌리 조엘, 시각장애인 소년 로건 리만과 함께 피아노 연주 선보여
- 포르투갈 최초의 시각장애인 성직자 탄생!
-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역사를 탐방합니다!
- 2019년 시각장애청년 희망캠프로 무더위를 날리세요!
- 한시련-캠코,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5' 출판기념회 열어
- LG유플러스와 함께 걸으며 건강을 챙겨요!
-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권을 회복한 날인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복절

읽기
① ④
② ⑤
③ ⑥

점 자 일 랑 표

자 음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된소리 ○○ ○○ ●
받 침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쓰받침 ○○ ○○ ●
모 음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ㅐ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ㅑ ○○ ○○	ㅓ ○○ ○○	ㅕ ○○ ○○	ㅗ ○○ ○○	
약 자	가 ○○ ●	나 ○○ ○○	다 ○○ ○○	마 ○○ ○○	바 ○○ ○○	사 ○○ ●	자 ○○ ○○	카 ○○ ○○	타 ○○ ○○	파 ○○ ○○	하 ○○ ○○	억 ○○ ○○	언 ○○ ●	얼 ○○ ○○	연 ○○ ○○
	열 ○○ ○○	영 ○○ ○○	옥 ○○ ○○	온 ○○ ●	웅 ○○ ●	운 ○○ ○○	울 ○○ ●	은 ○○ ●	을 ○○ ○○	인 ○○ ○○	것 ○○ ○○ ○○				
약 어	그래서 ○○ ○○ ○○		그러나 ○○ ○○ ○○		그러면 ○○ ○○ ○○		그러므로 ○○ ○○ ○○		그런데 ○○ ○○ ○○		그리고 ○○ ○○ ○○		그리하여 ○○ ○○ ○○		
숫 자	수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0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운뎃점 (.) ○○○○○○○○○○○○○○○○○○○○	말줄임표(...) ○○○○○○○○○○○○○○○○○○○○			말줄임표(...) ○○○○○○○○○○○○○○○○○○○○			소괄호() ○○○○○○○○○○○○○○○○○○○○			대괄호[] ○○○○○○○○○○○○○○○○○○○○			
영 어	영어시작 ○○ ●	끝 ○○ ●	대문자 ○○ ○○	a ○○ ○○	b ○○ ○○	c ○○ ○○	d ○○ ○○	e ○○ ○○	f ○○ ○○	g ○○ ○○	h ○○ ○○	i ○○ ○○	j ○○ ○○	k ○○ ●	l ○○ ●
	m ○○ ○○	n ○○ ○○	o ○○ ○○	p ○○ ○○	q ○○ ○○	r ○○ ○○	s ○○ ○○	t ○○ ○○	u ○○ ○○	v ○○ ○○	w ○○ ○○	x ○○ ○○	y ○○ ○○	z ○○ ○○	아포스트로피 , ○○ ○○

○ 'ㄴ',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ㅌ', 'ㅍ' 다음에 약자 '영' ㅅㅇ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명서]

파렴치한 교육부관계자들, 교육계를 떠나라!

우리 연합회는 지난 7월 17일 성명서를 통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및 대체교과서 제작사업의 사업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5대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숙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부하직원의 뒤에 숨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교육권에 심각한 차별과 침해를 받아온 시각장애학생과 가족에게 석고대죄하지는 못할망정 본질을 왜곡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동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의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무자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와 망언을 일삼는 행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 실무자는 우리 연합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에 관심이 있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국회의원실에 허위보고하는가 하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질문을 하여 우리 연합회가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보다는 잣밥에 관심이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우리 연합회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에 참여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망언을 일삼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처럼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짓밟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연합회는 우리의 명예를 거리낌 없이 훼손하고 모욕적 언사를 망설임 없이 일삼고 있는 자들을 뿌리 뽑아 더 이상 장애학생들의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은 제 식구를 감싸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연합회의 문제제기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저 만나서 협의하자고만 하고 있다. 이는 문제제기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담당자들은 보직이동을 할 것이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것이라는 교육부관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비겁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또한 지난 성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본 현안은 국립특수교육원관계자를 만나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연합회의 문제제기나 요구사항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반드시 수용하여 시행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교육부의 책임 있는 지위의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에 유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연구사를 앞세워 문제해결을 하도록 할 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나서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본인들의 자녀가 사용하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틀린 맞춤법과 인쇄 방식으로 출판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월 30일에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현 정부 국무위원들이 장애인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위원들을 향해 장애인단체장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현 정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장애인단체장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 되어버렸다. 국무총리의 말을 국무위원들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르지 않다. 지난 3월 14일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담 재요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유은혜 장관은 비장애아동들을 모아놓고 모의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권에서 차별받고 울부짖는 시각장애아동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비장애아동들과는 태연하게 공개적인 행사를 가진 것이다. 이는 시각장애아동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이대로 포기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또 과거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달리 현 정부 국무위원들이 장애인단체장과의 면담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장애인단체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국무총리의 발언은 그저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하극상을 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현 정부가 각성하지 않고 현재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소통의 방식, 즉 대화와 논의가 아닌 행동으로 말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지난 성명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답변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할 것이다. 또한 파렴치한 교육부관계자들은 스스로 교육계를 떠나기를 권고하며, 교육당국은 우리 연합회의 안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9년 7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대체자료에 대해 아시나요?

교육부 소속인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 “장애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연구, 연수 및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최근 시각장애 학생의 욕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확대문자·음성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초기부터 적절한 시기에 대체자료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점자 표기 오류 등 품질 문제까지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측은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2018년 한 시각장애 학생의 언론 기고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개선책의 하나로 적기 보급을 우선시 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점자표기 오류와 점자규정 미준수, 가독성 저하 등의 문제를 검수하지 않은 채 제작된 대체자료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보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은 침해받고 있으며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시각장애 학생 대체교과서 단가 산정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연구진들은 입찰제안 요청서 상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해 정상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립특수교육원과 교육부를 향해 침해받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되찾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부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 시각장애 학생들이 도 학습 교재의 제약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작은 손으로 만드는 선물 10세 피아니스트 김건호 학생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들려주는 소년이 있습니다.
서울맹학교 김건호 학생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는 김건호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Q. 피아노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나요?

- A. 피아노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6살이었던 2015년 가을 썸 뷰티풀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오디션이 있었어요.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이 오디션에 지원해 볼 것을 권유하셨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악보를 볼 수 없어서 피아노를 소리로 듣고 외워 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악을 외우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A. 거의 대부분의 피아노곡은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이용하여 연주를 하는데요. 양 손으로 함께 연주되어있는 곡을 들으며 연습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왼손과 오른손의 음을 찾아서 연주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왼손, 오른손을 따로 녹음해주시면 그걸 듣고 한 손씩 따로 연습하다가 나중에 양 손으로 녹음된 곡을 듣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Q. 작곡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여태까지 작곡했던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을까요?

- A. 작곡은 혼자 취미로 조금씩 하다가 올해 5월부터 작곡 선생님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작곡한 곡은 총 2곡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처음에 작곡한 곡인 가을길이라는 곡입니다. 가을길은 반주를 3/4박자로 일정하게 가지고 가면서 단조와 장조를 왔다 갔다 하는 ABA 형식의 곡입니다. 가을의 정취와 풍경, 냄새 등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데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바스락 거리는 낙엽의 소리가 생각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곡입니다.

Q. 작곡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A. 지금은 제가 연주하는 음을 선생님이 받아 컴퓨터로 옮겨 악보와 음원으로 만들어 보내주십니다. 그 뒤 제가 음원을 듣고 수정하고 다시 녹음해서 보내고 하는 형태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점자 악보를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점자 악보로 악보 쓰는 법과 컴퓨터로 악보 쓰는 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Q.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나 음악가가 있을까요?

- A. 저는 멘델스 존, 슈만의 곡과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좋아합니다. 이들의 음악은 선율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서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부드러운 음색과 선율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 세 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Q. 7월에 독일에 다녀오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로 가게 되는 건가요?

- A. 독일에는 자르부르크 뮤직페스티벌(Die "Saarburger Serenaden," das Internationale Musikfestival und die Schule)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15일 동안 열리는 축제인데요. 일주일 동안은 레슨을 받고 일주일 동안은 연주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현재 저를 지도하시는 신정양 교수님도 동행하시고 저는 실내악곡과 독주곡들을 연주합니다.
독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배우면서 피아노를 조금 더 깊이 알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공연일까요?

- A. 올해 2월 9일에 영산홀에서 있었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바흐의 신포니아 3번과 하이든 라장조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연주를 하면서 긴장이 많이 되기도 했고 이 연주회가 지난 2018년에 한세대 콩쿠르에서 수상한 사람들만 연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A.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랑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사람처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랑랑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실함까지 갖추고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랑랑재단을 통해서 저처럼 피아노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랑랑과 같이 피아노를 통해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릴 수 있습니다. 7월의 눈: 놀라운 작가들



7월의 눈 놀라운 작가들

Snow in July
: The Eyes of Astonishing Artists

2019. 7. 11 - 8. 18

훌륭한 미술작품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손에서만 탄생할까요?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는 이러한 편견을 탈피한 전시가 한창인데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관 코어갤러리 <둘레>에서는 '7월의 눈: 놀라운 작가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그린 지극히 훌륭하고 감동적인 작품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흔이 다 되어 가업인 세탁소 한 칸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붓을 놓지 않고 있는 어르신, 전문적인 교육과 무관한 어린 아이, 발달 장애를 지니고



남다른 시각과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어린학생들 등 총 70여 종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3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3점의 작품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비시각장애인 학생이 1:1로 짝을 지어 진행한 것인데요, 시각장애인 중학생들과 비시각장애인 초등학생이 한 조가 되어 서울 북촌을 탐방하며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3점의 작품은 모두 크레파스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북촌의 정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감정들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담아내었습니다.

작품은 선과 면의 형태로 추상적인 모습으로 완성되었는데요, 북촌지도1, 현정이랑 용택이랑, 북촌지도2, 해봉이 아저씨네 강아지 “마루야!”, 북촌지도3, 고향으로 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세 작품은 각각의 제목에 맞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한알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보다 풍부한 예술적 활력들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의 미술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 미술 작가들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퇴근길의 무료함 달래기

이성희(시각 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퇴근길, 대체로 지옥철을 타게 된다. 그나마 들어온 지하철을 타게 된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지하철 안은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꽤나 남았고, 무엇을 해야지 가는 동안엔 짧게 여길 수 있는 나만의 심리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한다. 대개는 노래를 듣는다. 노래의 가사 내용, 가수의 목소리, 반주에 사용된 악기들의 고유한 소리와 그것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앙상블 등, 노래 하나를 입체적으로 들으려고 집중하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 부근에 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것도 잘 통하지 않는 때가 있다. 그러면 지옥철에서 보내는 퇴근 시간이 더욱 힘들고 지루하기만 하다. 뭐 좋은 게 없나 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그런데 이런 날은 평소 재미있던 것들도 별다른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누군가가 아주 작정하고 일부러 내게 해코지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며칠 전 퇴근 시간이 그랬다. 가뜩이나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이미 마음의 짜증 지수는 여느 날보다 높아 있는데 시원하게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송풍만 나오는 퇴근길의 지옥철에서 나만의 빠른 심리적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 보는데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해 마음속으로 끄끖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맞춤법 퀴즈를 하게 되었다. 쑥 빨려 들어갔다. 퀴즈 문제 제시 방법이 아주 단순했고, 한 문제 풀 때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바로바로 알려 주니까 그 방식이 시원해서 좋았던 것 같다.

퀴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정말 알쏭달쏭한 정도의 난이도였다. 그래서 더욱 재미를 느꼈을는지 모른다. 문제를 우연히 읽었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뭘 묻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문제라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약간의 고민도 없이 스윽 보고도 대번에 문제의 답을 맞힐 수 있는 것이었다면 재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한때 한글맞춤법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학창시절 공부한 때가 생각나고, 그때는 괜히 그런 걸 잘 알고 싶었던 것도 같다. 며칠 전 지옥철에서 맞춤법 퀴즈를 우연히 접하고 순간 빨려 들어가게 된 것도 어찌 보면 퀴즈의 구성이나 작동 방식이 갖는 매력적인 면보다 이전 삶의 어느 한 때에 꽤나 정을 들였던 것을 접한 반가움이 일어서 그랬던 것인지도 모른다.

혹여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알쏭달쏭 맞춤법 퀴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며칠 전 지옥철에서 맛보았던 즐거움을 나눠 보고자 10개의 맞춤법 퀴즈를 같이 풀어 보면 어떨까 한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1번 문제

- ㉠ 세찬 바람에 간판이 날아오기라도 할까봐 겁먹었다.
㉡ 세찬 바람에 간판이 날아오기라도 할까 봐 겁먹었다.

정답: ㉡

이유: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두려워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 '보다'는 '할까 봐'와 같이 분용언과 띄어 써야 한다.

2번 문제

- ㉠ 거기 물잔을 건네주시겠어요?
㉡ 거기 물 잔을 건네주시겠어요?

정답: ㉡

이유: '물잔'은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물 잔'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3번 문제

- ㉠ 거기 놀기는 좋은데 좀 복잡해
㉡ 거기 놀기는 좋은 데 좀 복잡해

정답: ㉠

이유: 'ㄴ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어미이므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빌리 조엘, 시각장애인 소년 로건 리만과 함께 피아노 연주 선보여

미국의 유명 가수 빌리 조엘(Billy Joel)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에서 14세 시각장애인 소년 로건 리만(Logan Riman)과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조엘은 리만의 피아노 재능에 대해 듣고 바로 리만에게 연락해 공연에서 함께 연주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리만의 연주가 시작되고, 조엘은 바로 리만의 연주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둘은 ‘피아노 맨(Piano Man)’이라는 곡을 함께 연주했습니다.

리만의 어머니는 “리만과 빌리조엘의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포르투갈 최초의 시각장애인 성직자 탄생!

포르투갈에서 최초의 시각장애인 성직자가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Fr Tiago Varanda 인데요. 16세부터 시력을 잃은 그는 지난 2019년 7월 15일, 브라가(Braga)에 위치한 사메이루(Sameiro) 대성당에서 성직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예배 중에 자신은 시력이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불이 켜진 양초에서 나는 왁스 냄새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는 앞으로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직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역사를 탐방합니다!

지난 7월 11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역사를 배우고, 지금을 느껴, 내일을 바라보자'는 주제로 중증시각장애인 역사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20명과 안내인 19명, 직원 3명, 버스기사 1명, 모두 43명이 함께한 이번 체험에서는 강화도 전등사, 김포 함상공원, 대명항 어시장 등을 방문했는데요, 문화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강화도 전등사를 둘러보며 역사적 사실을 듣고 김포 함상공원 내에 있는 2차 세계대전 및 월남전에서 실제로 활약했던 퇴역함인 운봉함도 관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듣고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시각장애청년 희망캠프로 무더위를 날리세요!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샘마을레저파크에서는 2019년 시각장애청년 희망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20~30대 시각장애청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공직생활, 에니어그램을 통한 성향 파악, 시각장애 청년의 교육·직무 등에 관한 당면 과제 및 미래비전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과 북한강에서의 수상레포츠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가 시각장애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전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시련-캠코,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5' 출판기념회 열어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5'의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캠코의 오디오북은 지식,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목소리를 통해 경제, 인문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특히 이 날 출판기념회에서 캠코는 시각장애인 전용 웹 정보 플랫폼인 '정보도서관'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의 기부금 6천만 원을 한시련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랍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걸으며 건강을 챙겨요!

지난 7월 19일 서울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LG유플러스의 후원으로 건강걷기교실이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시각장애인 7명과 직원 7명, 모두 14명이 참가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참가자와 직원이 한 조가 되어 텐덤바이크 탑승과 중랑천 산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모처럼 좋은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

뜨거운 차나 뜨거운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을 때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손을 살짝 손잡이에 닿게 해주시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심성 있게 다루게 됩니다. 또한 칼이나 공구류처럼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는 물건의 손잡이 쪽을 손에 닿게 해주면 됩니다.



I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대표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한은행 140-001-911645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247-890007-44704



손으로보는세상 2019년 8월 229호

발행일 2019년 8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